

## 청년층의 첫 일자리 특성<sup>1)</sup>

한진영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 전문연구원)

- 2023년 20-34세 청년층은 첫 일자리 취업 시 97.2%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 비기간제상용은 56.9%, 기간제는 40.3%임.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집단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은 30-34세, 교육정도는 대졸이상, 혼인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더 높음.
- 청년층 첫 일자의 특성임.
  -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기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비중이 높음.
  - 첫 일자리 월평균 급여액은 비기간제상용 및 기간제 여성, 기간제 남성의 경우에는 '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'이나 비기간제상용 남성의 경우에는 '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임'.
  - 첫 일자리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비기간제상용이 기간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긴 편임.

1) 본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에서 작성한 "KWDI 성인지통계 리포트 23-4(청년 첫 일자리 현황: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)" 통계리포트 일부 발췌·정리한 것임. 원문은 성인지통계 홈페이지(<https://gsis.kwdi.re.kr/gsis/kr/board/BoardDetail.html>)에서 확인 가능함.

## 들어가며

### ■ 청년층의 노동 시장 참여는 생애주기상 기대되는 과업이면서 이후에 기대되는 결혼이나 가족 형성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임.

- 청년층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 개인의 삶에서는 생애주기상 기대되는 과업을 이행하는 것이고,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 인적 자원이 적합한 일자리를 얻게 되면 결국 개인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수준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음.
- 평생 직장, 종신 고용의 경향이 약해지고 이직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으로 노동 시장은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노동시장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분리되어 있으며, 이보다 중요한 점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간 이동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임.
  - 통상 1차 노동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구성된 일자리이고 2차 노동시장은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. 예를 들어 정규직은 1차 노동시장, 비정규직은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.
  - 비정규직으로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개인에게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력을 쌓는 가교인지 아니면 오히려 낙인 효과를 갖는 함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며, 가교인 증거도 있지만 함정이라는 주장 또한 있음.
- 이러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특성에 따라 청년층은 첫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시작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의 진입이 지연되고 차별화 전략으로 인적자원을 계속해서 축적하고자 하여 과도한 투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.
- 인적자원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결국 청년층의 부모세대의 부담, 청년층에게는 취업 이후에 기대되는 결혼, 가족형성과 같은 생애주기상 과업의 지연 등이 따라올 수 밖에 없어 개인적,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됨.
-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청년층 첫 일자리 상황이 어떠한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.

### ■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통해 20-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을 살펴봄

-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5월에 실시되고 있음. 조사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기준 만 15-34세 연령층임(통계청(2023.7, 25쪽))<sup>2)</sup>.
- 본 리포트에서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20-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며,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를 ‘비기간제상용’과 ‘기간제’로 구분하여 성별로 분석하였음.
  - 비기간제상용 : 상용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
  - 기간제 :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용근로자,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

2) 통계청(2023.7). ‘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’. 25쪽.

- 주요한 분석 내용으로 20-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, 20-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현황 (첫 일자리 당시 취업형태, 전일제 여부, 월평균급여액, 직업별 분포, 첫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 기간)을 살펴봄.
- 변수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, 교육정도, 혼인상태는 첫 일자리 진입 시점이 아닌 조사 시점 기준임.

변수	설명
고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기간제 상용(상용+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)</li> <li>• 기간제(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금근로자 모두)</li> </ul>
인구통계학적 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(여성, 남성)</li> <li>• 연령(20-24세/25-29세/30-34세)</li> <li>• 교육정도(고졸이하/전문대졸/대졸이상)</li> <li>• 혼인상태(미혼/기혼/이혼사별별거)</li> </ul> <p>*연령, 교육정도, 혼인상태는 조사시점 기준임.</p>
첫 일자리 당시 취업 형태	비기간제상용, 기간제, 자영자, 고용주, 무급가족종사자
일자리 특성	전일제 여부 월평균 급여액 (100만원 구간별) 직업별 분포
진입 및 유지 기간, 사유	직업에 진입하기까지 기간 (개월) 첫 직장 유지기간 (개월) 첫 직장 퇴직 사유

## 청년층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

### ■ 2023년 15-34세 청년층은 25-29세, 고졸이하 그리고 미혼의 비중이 가장 높음

- 2023년 15-34세 청년층은 25-29세 3,513천 명(29.6%), 고졸이하 6,314천 명(53.2%), 미혼 9,918천 명(83.6%)이 가장 많음.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25-29세와 대졸이상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미혼의 비중이 높아짐.
  - 2023년 여성과 남성 청년층의 연령 구성을 보면 여성은 20-24세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4.0%p 높고, 25-34세의 비중이 낮음. 교육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졸이상은 6.8%p, 전문대졸은 3.7%p 더 높고 고졸이하하는 10.4%p 낮음. 혼인상태는 여성 유배우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7.1%p 더 높고, 미혼 비율이 7.7%p 더 낮음.
  - 2023년 15-34세 청년층은 11,864천 명으로, 25-29세 3,513천 명(29.6%), 고졸이하 6,314천 명(53.2%), 미혼 9,918천 명(83.6%)의 비중이 가장 높음.
  - 2023년 15-34세 여성은 전체 5,822천 명으로 25-29세 1,673천 명(28.7%), 고졸이하 2,790천 명(47.9%), 미혼 4,639천 명(79.7%)의 비중이 가장 높음.

## 청년층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 형태

■ 20-34세 청년층 첫 일자리 취업 시 임금근로자 취업 97.2%, 이 중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은 여성 58.7%, 남성 55.1%임

● 2023년 20-34세 청년층은 첫 일자리 취업 시 97.2%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 비기간제상용은 56.9%, 기간제는 40.3%로 비기간제상용의 비중이 높음. 남녀 모두 첫 일자리 고용형태는 비기간제상용이 가장 높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.6%p 더 높음.

- 2023년 20-34세 첫 일자리 취업 당시 97.2%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며, 이 중 비기간제상용 56.9%, 기간제 40.3%임. 2023년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3.6%p 더 높고 기간제의 비중은 2.8%p 낮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첫 진입하는 것으로 보임.

- 2023년 20-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7,132천 명 중 비기간제상용 4,060천 명(56.9%), 기간제 2,876천 명(40.3%)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9천 명(1.7%)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5천 명(0.6%), 무급가족종사자 33천 명(0.5%) 순으로 높음.
- 여성은 비기간제상용 2,110천 명(58.7%), 기간제 1,400천 명(38.9%)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4천 명(1.5%), 무급가족종사자 16천 명(0.4%)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천 명(0.4%) 순으로 높음.
-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,950천 명(55.1%), 기간제 1,475천 명(41.7%)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천 명(1.8%)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0천 명(0.9%), 무급가족종사자 17천 명(0.5%) 순으로 높음.

<표 1> 2023년 성별 첫 일자리 취업 당시 고용형태(20-34세)

(단위 : 천 명, %, %p)

		여성		남성		전체		여성-남성 비율차
		빈도	비율	빈도	비율	빈도	비율	
임금 근로자	비기간제상용	2,110	58.7	1,950	55.1	4,060	56.9	3.6
	기간제	1,400	38.9	1,475	41.7	2,876	40.3	-2.8
비임금근로자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54	1.5	65	1.8	119	1.7	-0.3
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15	0.4	30	0.9	45	0.6	-0.5
	무급가족종사자	16	0.4	17	0.5	33	0.5	-0.1
전체		3,595	100.0	3,537	100.0	7,132	100.0	-

주 : 가중치 적용

자료 : 통계청, 「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」 원자료 분석.

## ■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일 때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일때의 전일제 비중이 더 높음

### ●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일 때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더 높지만 비기간제 상용에 비하여 기간제일 때 시간제의 비중이 더 높음(여성 19.7%, 남성 23.5%).

- 여성과 남성 모두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비기간제상용(여성 90.0%, 남성 93.0%)과 기간제(여성 70.3%, 남성 69.5%)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높지만 기간제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의 전일제 비중이 여성은 19.7%p 남성은 23.5%p 더 높음.

- 첫 일자리가 전일제로 고용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 1,900천명(90.0%), 기간제 984천 명(70.3%)이고, 첫 일자리가 시간제로 고용된 여성은 비기간제상용 210명(10.0%), 기간제 416천 명(29.7%)으로 비기간제상용과 시간제 모두 대부분 전일제로 고용되지만 기간제에서 시간제의 비중이 높음.
- 첫 일자리가 전일제로 고용된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,812천명(93.0%), 기간제 1,026천 명(69.5%)이고, 첫 일자리가 시간제로 고용된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37천 명(7.0%), 기간제 450천 명(30.5%)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비기간제상용과 시간제 모두 대부분 전일제로 고용되지만 기간제에서 시간제의 비중이 높음.

### ● 첫 일자리가 전일제인 경우 비기간제상용은 남성이 더 높고(3.0%p), 기간제인 경우는 여성이 더 높음(0.8%p).

- 첫 일자리가 전일제로 고용되었을 때 비기간제상용 여성에 비해 남성이 3.0%p 더 높고, 시간제일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0.8%p 더 높음. 첫 일자리가 시간제일 때 비기간제상용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3.0%p 더 높고, 기간제일 때는 여성이 0.8%p 더 낮음.

<표 2>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일자리 전일제 여부

(단위 : 천 명, %, %p)

		여성		남성		전체		여성-남성 비율차
		빈도	비율	빈도	비율	빈도	비율	
비기간제상용	전일제	1,900	90.0	1,812	93.0	3,712	91.4	-3.0
	시간제	210	10.0	137	7.0	348	8.6	3.0
	전체	2,110	100.0	1,950	100.0	4,060	100.0	-
기간제	전일제	984	70.3	1,026	69.5	2,010	69.9	0.8
	시간제	416	29.7	450	30.5	866	30.1	-0.8
	전체	1,400	100.0	1,475	100.0	2,876	100.0	-
전체	전일제	2,884	82.2	2,838	82.9	5,722	82.5	-0.7
	시간제	627	17.8	587	17.1	1,214	17.5	0.7
	전체	3,511	100.0	3,425	100.0	6,936	100.0	-

주 : 가중치 적용

자료 : 통계청, 「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」, 원자료 분석.

## ■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의 경우 비기간제상용 남성은 '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'이 가장 높지만, 비기간제상용 여성과 기간제 남녀는 '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'이 가장 높음

### ● 비기간제상용 여성과 기간제인 남녀 모두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'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'이 가장 높지만,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의 월평균 임금액은 '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'이 가장 높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'100만원-200만원 미만'이 가장 높지만 다음으로 비기간제상용은 '200만원-300만원 미만', 기간제는 '100만원 미만'이 높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‘100~200만원 미만’(1,189천 명, 56.3%), ‘200~300만원 미만’ (713천명, 33.8%) 순으로 높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90.1%를 차지함. 기간제와 비교해 ‘100만원 미만’(14.3%p)이 낮고, ‘200~300만원 미만’(16.9%p)은 높음.

-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여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‘100~200만원 미만’(856천 명, 61.1%), ‘100만원 미만’(278천 명, 19.8%), ‘200~300만원 미만’(237천 명, 16.9%) 순으로 높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은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‘200~300만원 미만’, ‘100~200만원 미만’, ‘300~400만원 미만’ 순으로 높지만 기간제인 남성은 ‘100~200만원 미만’, ‘200~300만원 미만’, ‘100만원 미만’ 순으로 높아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간 차이가 있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의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‘200~300만원 미만’(855천명, 43.9%), ‘100~200만원 미만’(785천 명, 40.2%), ‘300~400만원 미만’(181천 명, 9.3%) 순으로 높음. 기간제와 비교해 ‘100~200만원 미만’(16.3%p)이 낮고, ‘200~300만원 미만’(18.3%p)은 높음.

-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‘100~200만원 미만’(834천 명, 56.5%)이 가장 높고, 다음으로 ‘200~300만원 미만’(378천 명, 25.6%), ‘100만원 미만’(227천 명, 15.4%) 순으로 높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여성은 ‘200만원 미만’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은 ‘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’의 비중이 더 높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의 월평균 임금은 ‘100~200만원 미만’(16.1%p), ‘100만원 미만’(0.7%p), ‘500만원 이상’(0.1%p)은 여성이 더 높지만 ‘200~300만원 미만’(10.1%p), ‘300~400만원 미만’(5.5%p), ‘400~500만원 미만’(1.3%p)은 남성이 더 높아 월평균 임금이 높은 구간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임.

-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경우 월평균 임금은 ‘100~200만원 미만’(4.6%p), ‘100만원 미만’(4.4%p)에서는 여성이 더 높지만 ‘200~300만원 미만’(8.7%p), ‘300~400만원 미만’(0.2%p), ‘500만원 이상’(0.2%p)은 남성이 더 높아 비기간제상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은 구간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편임.

**<표 3> 성별 비기간제상용여부별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**

(단위 : 천 명, %, %p)

		여성		남성		전체		여성-남성 비율차
		빈도	비율	빈도	비율	빈도	비율	
비기간제 상용	100만원 미만	115	5.5	94	4.8	209	5.2	0.7
	100~200만원 미만	1,189	56.3	785	40.2	1,973	48.6	16.1
	200~300만원 미만	713	33.8	855	43.9	1,568	38.6	-10.1
	300~400만원 미만	79	3.8	181	9.3	260	6.4	-5.5
	400~500만원 미만	11	0.5	34	1.8	45	1.1	-1.3
	500만원 이상	3	0.2	1	0.1	4	0.1	0.1
	전체	2,110	100.0	1,950	100.0	4,060	100.0	-
기간제	100만원 미만	278	19.8	227	15.4	505	17.6	4.4
	100~200만원 미만	856	61.1	834	56.5	1,690	58.8	4.6
	200~300만원 미만	237	16.9	378	25.6	615	21.4	-8.7
	300~400만원 미만	24	1.7	28	1.9	52	1.8	-0.2
	400~500만원 미만	5	0.4	6	0.4	11	0.4	0.0
	500만원 이상	1	0.0	2	0.2	3	0.1	-0.2
	전체	1,400	100.0	1,475	100.0	2,876	100.0	-
전체	100만원 미만	393	11.2	321	9.4	714	10.3	1.8
	100~200만원 미만	2,044	58.2	1,618	47.2	3,663	52.8	11.0
	200~300만원 미만	950	27.1	1,233	36.0	2,183	31.5	-8.9
	300~400만원 미만	103	2.9	208	6.1	312	4.5	-3.2
	400~500만원 미만	16	0.5	41	1.2	57	0.8	-0.7
	500만원 이상	4	0.1	3	0.1	7	0.1	0.0
	전체	3,511	100.0	3,425	100.0	6,936	100.0	-

주 : 가중치 적용

자료 : 통계청, 「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」 원자료 분석.

## ■ 대졸이상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에 취직하기까지 기간제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 더 길어

-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고졸이하에서 가장 길어 전문대졸 이상과 차이가 있음. 대졸이상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이 기간제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남.

-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가 첫 일자리일 때 모두 전문대졸 이상 여성의 첫 일자리까지 소요 기간은 8~9개월이지만 고졸이하의 14개월~20개월로 교육정도별로 차이가 있음.

- 고졸이하 여성은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직하기까지 14개월, 기간제로 취직하기까지 20개월이 소요되어 기간제에서 6개월 더 소요됨. 전문대졸 여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9개월 소요되었음. 대졸이상 여성은 비기간제상용이 9개월, 기간제는 8개월 소요되어 비기간제상용 취직 소요 기간이 1개월 더 많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남성은 소요 기간이 기간제보다 더 길게 소요됨.

- 고졸이하 남성은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직하기까지 24개월, 기간제는 18개월이 소요되어 비기간제상용에서 6개월 더 소요됨. 전문대졸 남성은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모두 10개월 소요됨. 그러나 대졸이상 남성은 비기간제상용 12개월, 기간제 8개월 소요되어 비기간제상용이 3개월 더 소요됨.

- 여성이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성보다 짧음.

- 첫 일자리가 비기간제상용인 남녀를 비교해보면 고졸이하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개월 더 소요되어 차이가 컸고,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문대졸은 1개월, 대졸이상 3개월 짧게 소요됨.
- 첫 일자리가 기간제인 남녀를 비교해보면 고졸이하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2개월 더 소요되고 전문대졸은 남성이 1개월 더 소요되었음. 대졸이상은 동일하게 8개월임.
- 여성 비기간제상용은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이 짧았으나 기간제인 경우는 전문대졸이 1개월 더 짧게 소요된 것을 제외하고 대졸이상은 동일하거나 고졸이하의 길게 소요됨.

<표 4> 성별 교육정도별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

(단위 : 천 명, 개월)

		여성		남성		전체		여성-남성 기간차
		기간	빈도	기간	빈도	기간	빈도	
비기간제 상용	고졸이하	14	421	24	560	19	980	-10
	전문대졸	9	559	10	449	10	1,008	-1
	대졸이상	9	1,130	12	942	10	2,072	-2
	전체	10	2,110	15	1,950	12	4,060	-5
기간제	고졸이하	20	390	18	685	18	1,075	2
	전문대졸	9	377	10	299	10	676	-1
	대졸이상	8	633	8	492	8	1,125	0
	전체	12	1,400	13	1,475	12	2,876	-1
전체	고졸이하	16	811	20	1,244	19	2,055	-4
	전문대졸	9	936	10	748	10	1,684	-1
	대졸이상	9	1,764	10	1,433	10	3,197	-1
	전체	11	3,511	14	3,425	12	6,936	-3

주 : 1) 가중치 적용

2) 교육정도는 조사 시점 기준 상태임.

자료 : 통계청, 「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」 원자료 분석.

## 요약 및 시사점

### ● 청년층 첫 일자리의 특성임.

- 20-34세 청년층의 첫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로 97.2%가 취업함. 이 중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하는 여성은 58.7%, 남성은 55.1%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3.6%p 더 높음. 기간제로 취업하는 여성은 38.9%, 남성 41.7%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.8%p 더 높음.
-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 일 때 모두 전일제의 비중이 높지만 비기간제상용인 경우 기간제에 비해 전일제의 비중이 높음.
- 첫 일자리 월평균 급여액은 비기간제상용 및 기간제 여성, 기간제 남성은 '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'이 가장 많지만 비기간제상용 남성은 '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임.'
-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고졸이하에서 비기간제상용과 기간제에서 모두 길어 교육수준별 차이가 있음. 또한, 여성이 비기간제상용으로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남성보다 짧음.

### ● 여성 청년층은 남성에 비해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간 또한 짧음. 반면 월평균 급여액에서 비기간제상용인 남성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3.9%,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0.2%로 높은 반면 여성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56.3%,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.8%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음.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를 비기간제상용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지만 임금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. 비기간제상용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일자리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조건에서 성별 차이가 있어 일자리의 세부적인 조건이나 집단별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.

### ● 참고문헌

통계청(2023.7). '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'.

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3) 마이크로데이터.

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23) 마이크로데이터.